

「국정원 정오표」

124p

4번 선지 번호가 ④이 아니라 ③으로 표기되어 있음.

③ 이덕무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.

→ 아까 글을 읽으면서 “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.” 이 문장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쉽게 판별할 수 있었다.

④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하면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.

→ 아까 내가 주의해서 읽었던 부분에서 선택지가 나왔다. 이덕무는 명이 중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기에,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말은 틀렸다.

24p

2번째 문단 2번째 줄 '이해하기 어려운지 문들을'이라고 작성되어 있음.

'이해하기 어려운 지문들을'이라고 수정해야 함.

그렇다면 머리에 어떻게 '큰 자극'을 줄 수 있을까? 그 방법은 바로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의 글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. 처음 읽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지 문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야 한다. 자기 독해 수준보다 좀 더 어려운 글을 읽으면 머리가 아프고,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것이다. 하지만 계속 부딪혀야 한다. 한 번, 두 번, 세 번 반복해서 읽는 과정을 통해 글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한다.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머리를 자극하게 되고 독해력과 사고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.

25p

'특'에 파란색 표시가 안 되어 있음.

시험장에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'섬세한' 습관 4가지

11. 정보량을 0으로 만드는 비법, 어휘의 함축적 의미
12. 정답률 11% 문제를 맞히는 방법, 제시된 개념 인지하기
13. 출제자는 단어 하나에 4시간을 고민한다, 특수한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 캐치하기
14. 이해한 척하려는 인간의 본성, 애매하면 멈추기